“정부 일괄적 도시재생 뉴딜정책 수정해야”

전남 외곽 이전 공공·교육·의료시설 재집적시켜야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위원 도시재생 세미나서 주장

전남 시·군 주요 시가지의 재생을 위해서는 외곽으로 이전한 공공·교육·문화·복지·의료시설의 재집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가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빈집이나 점포의 다목적 이용을 권장하면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유형을 적용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는 각 지자체의 여건, 재정, 미래 비전 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오후 빛가람혁신도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사)한국거버넌스학회, 전남대 공공행정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도시재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연구위원은 ‘전남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남의 경우 기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유형을 통합해 도시형은 도심정비형, 농촌형은 쇠퇴 시가지 중심지 정비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지역 특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문가, 공무원, 관련 업체 등 151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8.7%가 현 정부의 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농어촌지역 등 군 단위에 적용이 어렵다는 점 ▲주택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 ▲일반근린형의 경우 대상지 선정기준이 농어촌지역에 불합리하다는 점 등이다.

그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존 5가지 유형을 전남에서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단순화시켜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상권 활성화, 주거지재생 등에 집중하도록 하고,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해 국비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시형은 10만~15만㎡ 규모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과 주거지·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 정비 형태로, 농촌형은 반경 300~500m의 범위를 설정해 쇠퇴한 시가지 중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지 정비 형태로 각각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전남의 주요 시가지의 경우 정주 여건 매력 감소, 저층 노후주택 증가, 상권 쇠락, 소상공원 몰락 등의 현안을 품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시가지 쇠락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목포 만호동 일원, 순천 장천동 일원 등 5곳, 2018년에는 나주시 금남동, 광양시 광영동 등 8곳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순천, 여수, 구례 등 3곳이 추가로 대상지가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 크게 줄었다

1~4월 전년 동기보다 58% ↓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효과

올해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6명보다 57.7% 감소한 11명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이유를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96곳)에 설치한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횡단보도 LED조명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 확충에서 찾고 있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광주시, 경찰, 교통전문가, 인근 주민들과 함께 현장 여건을 분석하는 등 사고 위험요인 해소에 노력해왔다. 계절·연령별 사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 다발구간 인근 경로당과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곡예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를 진행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스쿨존 주변 신호등주를 노란색으로 도색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광주형 스쿨존 표준모델’ 사업도 관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상진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명확한 교통사고 원인분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지방도 공사 신속 추진
‘도로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전남도가 지방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사 발주 전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100% 완료된 곳을 우선 추진하는 ‘도로사업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7개 군의 도로팀과 보상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연찬을 지난 3일 갖고 지방도 정비사업 편입용지 선보상 추진 방침을 전달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로사업을 시작한 후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업 장기화, 주민 간 갈등 유발, 예산 집행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선보상 착수지구는 ‘고흥 안남~송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3개 지구 42.5㎞다. 총 사업비는 2457억원 규모다.

편입용지 선보상과 별도로 전남도는 공사 발주 전 필요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적극적 행정절차를 이행할 경우 기존에 7년 이상 소요됐던 도로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또 사업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선 예산 수반이 필수적인 만큼 지방도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2019년 본예산 830억원 외에 지난 4월 추경예산에 27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도로사업의 5년 이내 완료를 위해 매년 2000억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리·달이와 함께 하는 어린이날 5일 오후 북구 광주시립미술관 천인탑 야외무대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수리·달이와 함께 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지역아동센터 모범활동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힘 모은다

광주시·전남도·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상생발전 연찬회

광주시와 전남도, 16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상생발전 연찬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북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상생발전 연찬회’가 열렸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16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광주시·전남도, 광주 남구·광산구, 나주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각 기관에서 팀장 또는 실무를 맡고 있는 참석자들은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현안을 논의했다.

이전공공기관에서 세우는 ‘지역발전계획’에 지역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고, 매년 개최되는 대학생 공공기관 탐방에 이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 빛가람축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도시에 새롭게 정착한 임직원에게 남도의 역사와 문화·예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특강도 진행됐다.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는 ‘역사 속의 전라도, 1000년의 혼’을 주제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장경화 초빙교수는 ‘남도 미술의 흐름과 정신’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광주시는 매년 상생발전 연찬회를 개최하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김병규 광주시 혁신도시담당관은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삼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106억 추가 확보

전년도보다 79억원 증가
주차환경 개선·상권활성화 사용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9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국비 106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당초 확보한 국비 88억원을 포함해 총 194억원의 국비를 올해 사업비로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광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 115억원보다 7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주차환경 개선 55억원 ▲상권 활성화 40억원 ▲특성화시장 9억5000만원 ▲청년 몰 활성화 1억5000만원 등에 사용된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공영주차장 건립과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시장을 찾는 고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한다.

주차장 건립사업 대상으로는 동구 대인시장과 광산구 비아5일시장이 선정됐다.

서구 양동시장(연합)과 북구 건축자재의 거리 등은 주차장 개보수사업을 지원받는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서구 양동시장(7개시장 연합)에 5년 간 80억원의 사업비(국비 40억원 포함)를 투입해, 지역 선도시장으로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특성과 지역 고유자원을 연계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존재하는 특색 있는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문화관광형시장’은 광산구 송정연합시장(1913송정역시장과 송정매일시장)이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는 동구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 조대 장미의거리, 북구 패션의거리가 선정돼 시장별로 각각 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는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은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에 젊은 감각을 불어넣고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1913송정역시장이 선정돼 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출시한 광주상생카드와 더불어 국비 추가 확보를 계기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매출 증대, 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보세요

나주공업고등학교
NAJU TECHNICAL HIGH SCHOOL

지역 기업에 지역의 인재를 !

1972년 나주한독공업고등학교로 출발한 나주공업고등학교는 기계·전기계열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학생의 소질과 눈높이에 맞는 모둠교육을 통해 학생의 진로 결정을 지원합니다.

학교·교육청·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수기업에서 지역 인재가 자리잡고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학생, 할 줄 아는 학생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기과

• 교육과정 : 전기 내선공사 및 전기기기 제작, PLC-공유압 이용 프로그램 작성 및 운영
• 취득자격(기능사) : 공유압, 생산자동화, 승강기, 전기, 전기기기
• 직무 가능 유형 :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 내선공사시공, 전기전자 설비유지

기계과

• 교육과정 : 기계가공 기술 이용 가공조립, 설계 용접 및 특수용접 기술 이용 시공 및 설치
• 취득자격(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설비보전, 용접, 컴퓨터응용밀링, 특수용접
• 직무 가능 유형 : 부품제조 및 가공, 기계조립, 용접, 기계설치 및 정비

금형과

• 교육과정 : 2D 및 3D 기계설계 기술 이용 설계 MCT 및 CNC 공작기계 첨단 가공
• 취득자격(기능사) : 컴퓨터응용 밀링, 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전산응용기계제도(CAD)
• 직무 가능 유형 : 기계설계, 금형제작, 부품가공, 기계설치 및 정비

우리학교 전체 학생 대상
• 교육과정 : 학생의 소질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모둠 교육과정 운영
• 취득자격(기능사) : 지게차, 굴삭기,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기능사, 한국사 자격증을 재학생 70%이상 취득
• 직무 가능 유형 : 현장업무와 사무실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융합직무교육

• 학교와 기업에서 실무능력을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기업 맞춤 산업체 기능요원 병역특례과정 특성화고 인력양성 과정
• 공공기관·대기업·공무원반 취업역량강화 교육과정
• 학생이 행복한 학교, 지역민과 함께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교육과정
• 설계, 3D모델링, 컴퓨터활용능력, 사무행정업무를 위한 여학생 사무직 교육과정
• 기계설계/CAD, 배관, 냉동기술 직종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양성 기능영재반
• 전남교육청 개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취업과정 JOBs 교육과정
• 대한민국 명장에게 배우는 현장실무 교육, 배관설비 CEO양성 명장공방 봉사단

질문과 토론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58246) 나주시 건재로 43 (대호동) 나주공업고등학교 tel:(061) 332-3914(교무실), 3911(행정실) / fax:(061) 333-0743